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반복과 집적을 통한
유기적 형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권 혜 정

반복과 집적을 통한
유기적 형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권혜정


인 준 서

권혜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노 신 경 

심사위원 권 기 범 

심사위원 유 근 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형태의 논리와 외적 표현의 운용기능을 확보한 반복이 내재적 의미를 포괄한 집적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인 연결 표현에 관한 연구이다. 사람과 사물과 현상의 관계에 반복이라는 매개가 관여함으로써 대표적 복잡계인 네트워크 안에는 독특한 양상이 생성된다. 특히 형태 구현의 논리에 한정되지 않고 내적 측면에도 다층으로 관여하는 반복의 특이성을 본 연구는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복의 내면적 특유는 같음의 되풀이와 연속, 같음에 대한 접속과 밀착, 안정에 있다. 더불어 다른 것이 용납되지 않으며 같음이 종용되고 강요되는 동일한 것 일색의 단일한 획일성이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선상에서 목격되는 다양성의 무시와 차단, 배제와 분리의 불안정한 편에 대한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음의 반복에 대한 집착에 변화를 주는 차이의 개입은 본 연구의 표현 화법에서 주요한 골자가 된다.

인간은 외계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타 존재를 지각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같음이 강제되거나 다름을 배제하는 공적관계의 다양성 부실은 타자 간에 부여된 필연적인 책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가 회복된 진실을 역으로 더욱 상기하게 한다. 또한 생존경쟁으로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어 물화된 타자인식은 비인간화된 사회현상을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와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간존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복을 통한 입체적인 형상의 표현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 테러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과 환경에까지 가해지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기업의 은밀한 탐욕으로 환원된 서구의 제국적인 근대성 modernity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문명의 충

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채로운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각인시킨다. 우리를 관통하여 켜켜이 배접된 근대 이데올로기는 욕망충족의 목적이 낳은 유무형의 산물을 우리에게 남겼다. 물려진 유산은 생명체의 genome과 같아서 전승된 근대의 토대 위에 건설한 현재와 분리되지 않는다. 반복된다는 것은 시간과의 동행 속에서 동일한 유무형의 소산물을 쌓으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나가는 연결이다.

본 논문은 동일함이 되풀이되는 관계, 되풀이의 누적으로 형성되는 획일함을 오브제의 입체적인 형태의 반복으로 표현하는 유기적인 형상을 통하여 탐구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면의 구성을 시도함으로써 감지되는 물성과 형태의 변화 있는 표현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유기적, 집적, 반복, 차이, 연결, 구별, 근대성, 동일성, 노마디즘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내용적 배경	4
1) 반복의 동일성과 차이성	4
2) 초국적 관계망의 반복성	7
3) 반복으로 인한 연결과 구별	9
2. 작품 연구	11
1) 내용 연구	11
2) 표현 연구	14
III. 작품 설명	20
1. FOULE 시리즈	21
2. VAGUER 시리즈	32
3. FLOT 시리즈	44
4. ONDE 시리즈	49
IV. 결론	5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오브제 날 개체의 형태 및 물성에 관한 사전 실험	16
【표2】 본 연구의 연관 선행 작품	42

도 판 목 차

- 【도판1】 ‘점으로부터’, 55.88×76.2cm(15), Watercolor on paper, Works on paper, 이 우환, 1975 6
- 【도판2】 ‘선으로부터’, 53.0×63.0cm(15),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Painting, 이 우환, 1978 6
- 【도판3】 ‘The banality of the banality of evil’, Banksy 2013 25
- 【도판4】 ‘Hammering Man’ 연작 중 7번째 작. Jonathan Borofsky, 2002 · 27
- 【도판5】 ‘The Man Who Sang and Woman Who Kept Silent’ 의 연작, Judith Mason, 1995 42
- 【도판6】 ‘겹’, 90.0×90.0cm×3.0cm, 한지, 혼합재료, 2014 42
- 【도판7】 ‘겹’, 지름 90.0×3.0cm, 한지, 혼합재료, 2014 42
- 【도판8】 ‘무제’, 58.0×56.0×1.5cm, 한지, 혼합재료, 2013 42
- 【도판9】 ‘겹’, 50.0×38.0×9.0cm, 종이, 혼합 재료, 2013 42
- 【도판10】 ‘겹’, 54.0×53.0×3.0cm, 한지, 혼합재료, 2014 42

작 품 목 차

【작품1】 FOULE 1,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1
【작품1_1】 FOULE_1, 상세	21
【작품2】 FOULE-2,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2
【작품2_1】 FOULE_2, 상세	22
【작품3】 FOULE-3,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4
【작품3_1】 FOULE_4, 상세	24
【작품4】 FOULE_4, 10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5
【작품4_1】 FOULE_4, 상세	25
【작품5】 FOULE_5,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7
【작품5_1】 FOULE_5, 상세	27
【작품6】 FOULE_416,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9
【작품6_1】 FOULE_416, 상세	29
【작품7】 FOULE_7, 91.0×117.0×5.0cm, 유산지, 혼합재료, 2015	30
【작품8】 FOULE_8, 91.0×117.0×5.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5	30
【작품9】 FOULE_9, 50.0×25.0×10.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7	31
【작품10】 FOULE_10, 50.0×25.0×10.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7	31
【작품11】 VAGUER_1,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32
【작품11_1】 VAGUER_1, 상세	32
【작품12】 VAGUER_2,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33
【작품12_1】 VAGUER_2, 상세	33
【작품13】 VAGUER_3, 100×70.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35
【작품13-1】 VAGUER_3, 상세 1, 2	35

【작품14】 VAGUER_4, 116.8×91.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정)	35
【작품14】 VAGUER_4 (측)	35
【작품15】 VAGUER_5, 97.0×162×15.5cm, 비닐, 혼합재료, 2017	36
【작품15_1, 2】 VAGUER-5, 상세 1, 상세 2	36
【작품16】 VAGUER_6, 50.0×35.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38
【작품17】 VAGUER-7, 25.0×25.0×8.0cm, 비닐, 혼합재료, 2016	38
【작품18】 VAGUER_8, 27.0×28.0×6.0cm, 비닐, 혼합재료, 2017	38
【작품19】 VAGUER_9 25.0×25.0×8.0cm, 비닐, 혼합재료, 2017	40
【작품20】 VAGUER_10, 28.0×28.0×9.0cm, 비닐, 혼합재료, 2017	40
【작품21】 FLOT_1, 54.0×54.0×5.0cm, 비닐, 혼합재료, 2015	44
【작품22】 FLOT_2, 30.0×30.0×5.0cm, 10ea, 장지, 혼합재료, 2015	44
【작품23】 FLOT_3, 164×100cm, 장지, 혼합재료, 2015	45
【작품24】 FLOT_4, 100×164cm, 장지, 혼합재료, 2015	45
【작품25】 FLOT_5, 30.0×30.0×5.0cm, 2ea, 장지, 혼합재료, 2015	47
【작품26】 FLOT_6, 30.0×30.0×5.0cm, 2ea, 장지, 혼합재료, 2015	47
【작품27】 ONDE_1, 설치, 70.0×100×92.0cm, 70.0×100×102cm, 비닐, 혼합 재료, 2017	49
【작품27_1】 ONDE_1, 상세	49
【작품28】 ONDE_2, 설치, 300×400×80.0cm, 비닐, 혼합재료, 2017	49
【작품28_1】 ONDE_2, 부분	49

I. 서 론

세계 사회의 방대한 관계망 속에서 기존 관념을 뒤엎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청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유기적인 연동체계로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인다.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유무형의 산물에는 ‘생육사’에서 비롯되는 많은 단서들이 담겨져 있다. 타자와 관계적 존재로서 갖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감안하면 한 인간의 내적 반영으로의 산물을 온전히 개인의 독자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사회와 관계적 기능이 작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로 부터 구조화 되는 동시에 사회를 구조화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디지털 네트워크와 범 시공적인 소통은 낯선 타자를 손쉽게 구별하고 지나쳐버리며 같은 타자와의 ‘같음’을 발견하도록 북돋운다. 세계는 오늘날 세계화와 개인화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진일보한 혁신의 세상을 실현 중에 있다. 디지털 가상공간(cyber space)은 사적으로 점유되어 접속과 밀착의 ‘연결’¹⁾ 그리고 차단과 분리의 ‘구별’²⁾로 구분하며 같은 것에만 연결되려는 밀착을 보인다. 너무나 쉽게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가속화되는 고립과 개인화로 인한 분리, 혹은 사회적인 소속감을 얻고자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는 오히려 자아를 공허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같아지려는 욕구에 의한 사회적 동일화와 사회관계망, 각종 네트워크에서는 반복의 작용이 일어난다. 시간과 자연의 순환, 인간 본연의 속성에서도 반복을 발견할 수 있고 유기적인 세상의 연결에도 반복의 작동을 볼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관통된 다양한 것들에서도 반복은 보인다. 본 연구에

1) ‘연결(Link)’은 사전적 뜻과 더불어 본고에서는 ‘구별(Distintion)’과 상대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구별(Distintion)’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별 짓기(La Distintion)’에 기초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둘러싸고 밀접한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반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오브제를 반복하여 다층으로 쌓는 반복행위의 기법을 통해서 그 것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근대화로부터 기인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과 지배사상은 우리에게 체기로 남아 남다른 역사적 울림으로 현재에 투영된다.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방치되어 온 사회의 위험요소들이 과학의 혁신적인 진보 위에서 정신 심리의 빈곤과 병리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과 생태, 재난과 재해, 전쟁과 난민, 기후와 질병, 인종과 젠더, 문화와 종교, 혐오와 차별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는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불가분의 유기체적인 문제로서 인류 공동의 난제이다. 연구자에게는 이 또한 동일화의 반복으로 읽히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들을 오브제의 물성이 대리하는 정체성과 반복형태의 집적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 소주제들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오브제가 갖는 물성을 고려하여 반복에 의한 표현의 모색 과정을 연구한다. 본고의 II장에서는 [반복성]에 대한 본 연구자의 생각과 연구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며 반복과 집적의 유기적 연계성이 전제된 본 연구자의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작품을 각 시리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자가 유기적인 ‘연결과 구별’을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 견지해 온 지점은, 외형의 윤곽 속에 내용을 담은 시각물의 구현으로서 리듬감 있는 다면적 입체성과 촉각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겹겹이 적층을 이룬 입체적인 레이어의 구축은 시각적인 감각의 영역 안으로 촉각적인 감각을 흡수시키고 더불어 완급과 강약의 리듬감 있는 흐름을 형성하도록 한다. 날 개체의 오브제가 미세한 차이를 가짐으로서 반복적인 집적으로 형성한 변화는 날 개체의 존재의미를 생성시킨다. 이와 동시에 시점의 이동에 따른 시선의 변화로 착시 효과를 얻어내고자 의도한다. 물성의 변이와 일그러지고 흐려지는 형태는 이동을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물의 제작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실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브제의 연결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가진 날 개체의 반복에 의한 집적된 형태의 구축이다. 둘째는 물성의 착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선행 실험이다. 그리고 셋째는 직감적인 표현의 미적인 접근에 있어서 내용과 외형의 교감이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어법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관적인 심미의 탐색보다는 ‘보기방식’과 ‘연결방식’에 대한 사유를 시각화함에 있어서, 낯선 시선과 방식의 접근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인지방식과 보기방식을 전환해 보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또한 시각물의 제작 전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창작자인 동시에 노동자로 성실하게 역할 하고자 한다. 결과에 나타날 시각적 효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수많은 반복의 노동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제적 연구 조건이다. 상호작용이 있는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함의를 위한 반복적인 형태의 연속, 그리고 연결의 행위자로서 노동의 반복을 수행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일한 것에 고착된 시각은 움직임 없는 사고 속에 머물게 한다. 작품에서는 재현을 되풀이하는 <온전한 일치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가지는 반복>을 사용한다. 본 연구자는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을 위해서 우선 평면성과 그리기의 범주를 벗어난 테두리에서 기법적인 모색과 상상을 떠나가고자 한다.

작품에서 입체적인 Layer의 형태와 오브제의 물성, 그것이 대리하는 정체성, 착시(Optical Illusion)효과는 전체 내용의 중심인 ‘연결’과 ‘구별’의 구현이자 <낯선 시선>으로의 환기를 시도한다. 시점의 이동으로 획득된 일루전은 일그러진 형상, 모호해진 형태의 경계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성이 없는 변모와 물성의 감각적 지각 이상을 경험케 한다. 측면 관찰을 통한 정면에서와는 또 다르게 포착되는 낯선 형태와 물성으로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오브제의 다양한 물성에 대한 실험을 작품 제작 전에 선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내용적 배경

1) 반복의 동일성과 차이성

‘반복’은 조형의 요소로서 형태 표현의 주된 기능 외에도 작품의 내용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결과 구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적인 일치로 이루지 않으면서 차이를 가지는 반복은 같은 것을 되풀이하여 연속하는 반복과는 구분된다. 차이가 있는 반복은 복제나 재현이 아닌 변화이고 생성이며 시간 속에서 구체화 된다. 전적인 일치를 이루는 반복은 정체되고 통제되고 갑갑하다. 일체의 일탈이나 변화나 상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사한 것에 대한 각성은 동일성에 반응하여 같은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재현적인 사고 속으로 판단을 종속시킨다. 단일한 시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일하게 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타자의 다양한 차이를 배제하고 부정하도록 한다. 실재하지 않는 상상이나 이면의 재발견과 같은 자유로운 사유는 동일성에 함몰되고 차이성은 소멸된다.

차이는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반복 안에서 있으며 반복은 시간을 동반하고 있는 연속이 된다. 반복에서 동일성이 무너질 때 즉각적인 차이로 일의성은 생성된다. <동일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에게 타자³⁾와의 차이는 유일한 ‘개별적 개체’로서 가치를 갖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상상이 차단된 시각, 변화의 균열이 없는 굳은 관념은 몰개성

3) 본 고에서, 타자는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으로서,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로 이분되지 않은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의 동일체로 동조되게 만든다.⁴⁾

누구나 타자와의 차이가 낫설고 두려운 불안을 내재한 채 살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같은 것과 연결하려는 ‘편’에 대한 갈망과 밀착으로 ‘차이’가 허락되지 않는 <동일한 반복>은 불안정한 편애로 매몰된다. 연속되는 편애는 동일성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공포와 다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차별로 함축된다. 결국 반복하는 재현은 차이를 낫선 생소함으로 멀게 하고 동일함을 획일성으로 수렴시키는 운반책이 된다.⁵⁾ 반복행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동질성이고, 반복행위를 통해서 멀어지는 것은 차이성이 된다. 반복적인 접속과 차단이라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검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같은 것의 반복>은 차이성의 차단과 동일성에 종속된 무용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과 <유사한 것>은 ‘동일성’이라는 공통분모에 기반하고 있지만 반복의 작동을 통한 ‘차이’라는 특유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분명히 확증된다. 특히 주시되는 반복은 <차이를 가진 반복>으로서 그것은 자유로운 율동이며 역동하는 가변이다. 강약과 완급으로 누적되는 변화는 정체하지 않는 움직임의 리듬을 생성한다.

들뢰즈는 반복의 주된 두 개념의 유형으로서 <개념에 외부적인 반복>, <이념에 내부적인 반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가장 단순한 모방조차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의 차이를 끌어안고 있다. 재현을 통해서도 차이가 사유될 수 없기에 재현이 아닌 차이가 있는 반복은 고유하다. 개념의 동일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차이를 인정하고 창조적 환상과 사유 안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이 생성이고 변화이다. 차이 없는 반복은 재현이자 복제의 전승이며 그 이상의 것, 미지의 불확실한 기대를 허락하지 않는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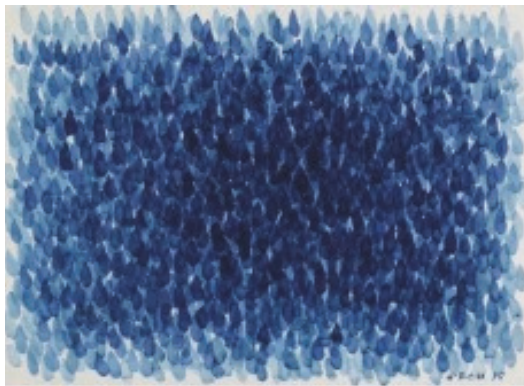
재제작하는 행위는 현재에 과거를 상기하는 방식으로서 그 때마다 장소나 시

4)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p.16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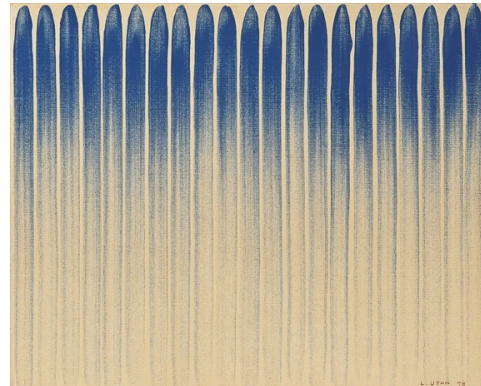
5) 엄기호, 『단속 사회: 설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창비, 2014, p.61.

6)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op. cit.* p.71.

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재제작 될 때마다 작품의 양상이 어긋나가는 변화인 것이지 변경이 아니다. 재제작은 현재가 과거를 상기하는 가운데 과거가 현재를 규정해가며 행해진다. 기본적 요소나 형태는 과거로의 소중한 통로가 된다. 여기서 작가는 재제작이 복제로서의 반복 아니라 차이가 있는 반복임을 분명히 하며 시간 속에서 집적된 것임을 암시한다.⁷⁾ 생성이 있는 <차이를 가진 반복>과 완전한 일치로 되풀이하는 <복제로서의 반복>으로 구분된 반복을 본 고에서는 논하고 있다. 차이를 가진 반복적 표현은 변화의 재제작으로서 복제가 아니다.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전 것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생성이다. 그 집적된 생성의 리듬감 있는 반복을 【도판1】 , 【도판2】 역시 보여주고 있다.



【도판1】 ‘점으로부터’,
Watercolor on paper, Works on paper,
55.88×76.2cm,
이 우환,
1975



【도판2】 ‘선으로부터’,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Painting, 53.0×63.0cm,
이 우환,
1978,

7) 김미경, 『모노하의 길에서 만난 이우환』, 공간사, 2006, p.49.

2) 초국적 관계망의 반복성

오늘날 사회는 초국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동감 있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의 현대사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누적된 정보의 활용에 의한 재발견을 더욱 필요로 한다. 오늘날은 관계망 안에서 이전에 획득된 정보와 성과들이 쌓여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롭게 발견을 이루어가는 것이 ‘혁신’이 되고 있다. 권태감의 제거로 신선함을 추구하는 예술의 시도에서 근본을 살펴보면 창조라기보다는 새로운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혁신과도 맥이 통한다. 접속과 차단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디지털세계의 편리함과 디지털기기의 보급에 의해 네트워크는 관계 맺기가 한층 간편해진다. 밀착의 접속이 아니면 분리의 차단이 반복되는 관계성향이 드러나기에 매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오늘날 네트워크는 모든 다른 것, 모든 낯선 것이 차단된 공간으로, 같은 것만 주고받는 메아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진정한 공명이란 것은 가까움을 전제로 한 타자와의 소통이다. 그러나 오늘날 타자와의 소통은 같은 것의 무 간격으로 동일함의 밀착에 매몰되고 있다. 지구적인 광범위한 소통 관계는 ‘다른 같은 자’이거나 또는 ‘같은 타자’만 허락된다.⁸⁾

사회관계망의 지구적 다양한 콘텐츠의 제안과 접근은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더욱 적극적인 초국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북돋운다. 네트워크는 공적 목적과 의도를 더없이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치이자 선택지가 된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활성화라는 것은 휘발적인 관계들의 흔적이 지구적으로 방대하게 집적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면적 익명성에 기댄 저급한 정보의 확대와 확산은 찰나적이고 파급력 또한 막강하다. 그 양상에 있어서 ‘반복성’이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가 없다. 정보의 이용자는 누구나 이 과정에 관여하는 능동적인 생산

8)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p.15.

자이자 수요자가 된다. 디지털시대에 정보는 소비와 공유, 생산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반복에 의한 무한재생, 복제와 재현, 확대와 왜곡, 재생산을 누적한다. 세계의 범 시공 연결은 접속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차단으로 끊기거나 삭제될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순간의 사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통신망을 통해서 장소 이동 없이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미지와 영상정보의 송수신, 상호소통을 가상공간(Hyper-world)속에서 자유로이 실현하고 있다. 가상세계로의 진입은 노마디즘⁹⁾과 <가상의 정착성>을 가능케 한다. 가상적 이민자, 방문객, 원거리학생은 장소의 정주 중에도 가능하다. 반대로 가상적 정착민이 되어 실제로는 이동하지만 정주하는 것처럼 믿게 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가치관과 일상의 개념을 흔들여 놓은 노마디즘의 메시지는 상상이 실현되는 자유로운 이동과 정착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가상이라는 공간에 대한 실재적 유용성을 일깨워 준다. 시뮬라크르(simulacre)의 가상과 실제인 현실을 넘나드는 현대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면의 공간은 이동의 자각도 없이 누리는 자유와 체험 덕분에, 정착성과 노마디즘은 서로 혼동되거나 결합되기도 한다. 완전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교역과 교류의 영역이기도 한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가 없는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지만 지배적 영역의 면모를 갖는다. 사실상 모든 행위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도굴되는 초-감시의 영역으로 자치권을 정복하여 그자체로 막강한 세력이 된다.¹⁰⁾ 수많은 손에 들린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보안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초 감시의 일상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사적 내밀한 것은 구경거리

9) 노마디즘(Nomadism)은 특정한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노마드, Nomad)에서 나온 말이다. 유목주의라고도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 Gilles Deleuze가 1968년 발표한 <차이와 반복>이라는 저서에서 노마드의 세계를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묘사하여 철학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기존의 가치나 철학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는 것을 뜻하며 학문적으로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탐구하는 것을 뜻한다. 본 고에서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저서[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L'homme nomade]을 참고하였다.

10)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L'homme nomade』, 이효숙 역, 웅진 지식하우스, 2005, pp.438-439.

가 되고 타자에게 불거리로 제공되어 소비된다. 뿐만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big brother’가 되어 유용하게 쓰인다. 인터넷의 발달은 다량의 정보로 구축된 글로벌체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이미 누적된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진보를 위해 활용하는 과거의 정보들이 퇴행을 추동하는 셈이다. 과거의 편견이 다분히 작동되어 윤리나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계적 방식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규격화된 외적 전형을 전시하며 획일한 외적 환상을 심어주고 동일한 모형의 창궐을 일으킨다. 같은 것의 창궐은 정지상태를 초래한다. 의도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되는 소비욕구는 모두 같아지기 위한 과잉소비를 유도한다. 초국적 관계가 가능한 오늘날의 세계인은 훨씬 쉽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물건을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마디즘 대응품인 노마드 성향의 사물로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어떤 활동의 실행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범 시공으로 담보한다. 노마드 생활에 타자와의 연결 관계가 유지되는데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다. 각자에게는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용 전화번호처럼 비 영토적 주소가 부여된다. 정착지 또는 위치정보의 노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타자와 연결될 수 있다.¹¹⁾

3) 반복되는 연결과 구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인 시각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전체를 조립하기 위한 부속으로서 의미를 강조하기에 앞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갖는 의미가 우선순위를 점한다. 개인은 각자의 자유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다방면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차 두드러지는 흐름이다. 개인으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현실장소에서의 선택과 기회의 제약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은 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동성을 요구하고 궁극적 결과를 숙고해 보면 근대성의 시장

11) *Ibid.* p.440.

모델은 가족이 없는 개인화된 사회로 귀결된다.¹²⁾ 개인화는 연대와 공론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깊은 관계보다는 표피적인 관계를 활성화한다. 외피는 타자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 쉽고 역지사지 없는 표면적 소통으로 인해서 관계의 지속은 어려워진다. 관계망의 자유로운 소통은 거부하지 않고 매끄러운 같은 편과 밀착하는 반면, 불편하고 불쾌한 낯선 다른 편은 배제하거나 비난하기 쉽다. <같은 것의 연결>과 <다른 것의 구별>로 구분된 관계에서 공명 없는 각자의 소음은 당연한 것이다. 각각의 소음과 더불어 제공된 각자의 정보 역시 편향되고 확대 재생산되거나 왜곡되어 때때로 무익한 쓰레기로 쌓인다. 동종으로 연결된 사사로운 무리의 경험들은 공론의 언어로 전환되지 못하기에 공동의 보편가치는 부재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사회적 존재감 획득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수치감을 모르는 허망한 경험들이 무용하게 떠돌고 사적인 관계나 동일한 관계가 되풀이된다. 유용한 사회적 경험들은 세대를 거쳐 전달되고, 동시대 타자들과의 공감과 연대 속에서 사회적 존재감은 획득된다. 그러나 공적 관계의 단절은 우리에게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경험의 가치가 공유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같은 것에 동조하는 연결 관계는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반복되는 연결과 구별 관계는 차단과 함께 동질의 같은 것, 불쾌하지 않은 것만 접촉하는 밀착된 관계 맺기에 고착되게 한다. 낯설고 다른 것과의 교류와 연대는 빈약해지고 같지 않으면 밀어내는 편견을 반복으로 누적한다. 편견은 흔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편견이 작동되는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무심히 간과할 일은 아니다. 편견은 다시 반복되고 <혐오-차별-배제-억압-착취-지배>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모든 분쟁과 대립의 원인이 된다. 인종, 종교, 계층, 등의 문제가 핵심이라기보다는 편견을 작동시키는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실들로 작동된 편견이 확산되어 편향된 연결을 이루고 조직된 힘을 형성한다. 동

12) 울리히 벡 Ulrich Beck,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14, p.194.

일함으로 형성된 편견은 근대성(modernity¹³⁾의 도화선이 된다. 편견의 형성에 동일함의 연결과 반복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2. 작품 연구

1) 내용 연구

비닐 오브제(objet of vinyl material)와 종이오브제(objet of paper material)가 주는 상상은 다의적이다.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내면이 제작의 계기가 되어 좀 더 확장된 사회적 측면으로 이어진 시각에서 오브제는 다뤄진다. 일상의 대표적 포장재로 쓰이는 범용 플라스틱은 얇고 부드러운 성질에 가볍고 질기면서도 습기에 강하여 용처가 다양하다. 종이나 비닐은 물성이 유연하므로 둘러 감싸고자 하는 모양새가 어떻든 그 틀에 제법 잘 맞춰진다. 여러 색깔과 형태로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는데다 값싸고 편리한 사용재로서 하찮은 취급은 흔한 것이다. 무엇을 대신하여 담아내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쓰임새는 안타깝다. 벗겨지고 나면 남은 오염으로만 기억되는 비루한 껍데기로 버려진다. 원치 않는 어떤 것이라도 감싸 안고 있을 때가 차라리 덜 비참할지도 모르겠다. 이리저리 날리고 구르고 찢어지며 밝히다 버려져도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는 처참한 말로다. 그런 존재가 약자다.

연약한 일회성의 관계,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얇은 관계의 부실함,

13) 근대성(modernity)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시대적 의미를 강조한 해석에서부터, 이데올로기적, 사회학적,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자들의 해석이 있다. 본 연구자는 본 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대성(modernity)>의 의미와 해석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근대화라는 세계적인 동일화의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서구의 과오로써, 특별히 서구문명의 우월성이 강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업화와 식민지화가 동시에 감행된 부정적 측면과 후유증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 지배와 종속, 동일화로 해석한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과 연결된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실존적 가시성과 촉감마저 모호한 현실의 증발자요, 가볍기 그지없는 허망하고 흐릿한 존재감이 보인다. 종기와 비닐은 흔하고 쉽게 사용되다 버려지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가볍고 흐릿한 인간상을 빚낸다. 더불어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타자인식으로 인한 관계의 연약함을 내포한다. 그러나 얇고 열은 흐릿한 낱알이 겉과 겉을 채워주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다층다면의 적층은 서로 연결된 연대이며, 타자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가 된다. 타자의 존재 지각과 관계생성의 명증은 현존성에 있다. 외형뿐만 아니라 개념으로서의 ‘반복’은 반드시 신체와 시간이 동반된 행위를 통해서 시공간에 실존시키고자 하였다.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이 세계에 편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신체인 것이다..... AI는 어차피 지식의 총체일 뿐이다. 그것은 신체를 갖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인간의 신체는 생물학적인 유한성을 지니면서도 끊임없이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숨결의 변화 속에 있으며, 외부와 관계를 가지는 다의적인 것이다”*고 이 우환은 말한다. 14)

행위를 살린 표현은 고유한 호흡이 더해져 모두 다른 시간 속에서 생동하는 반복이 되고 미묘한 풍미를 더하여 본다는 것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행위는 시공간에서 이행하는 물리적인 몸의 동행이다. <시간-공간-행위>의 삼위일체는 신체를 통한 현존으로 물성의 존재감을 확증한다. ‘반복’ 화법에 적힌 신체 행위는 바로 노동이다. 근대적 산업화의 동일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식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타자인식의 반추이기도 하다. 구별된 타자가 도구, 사물, 상품에 불과한 대상으로 치부되기 십상인 오늘날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에 대한 숭고한 시선은 실종되고 정당한 사회적 보상마저 무시하는 통념을 이야기한다.

14) 이우환, 『Lee, U-fan 이우환 무한의 예술』, 에이엠아트, 2020, p.92.

오브제의 연속되는 이어진 형태는 경계를 타고 복잡하게 얽히지면서 연결될 것과 구별될 것을 넘나든다. 밀도의 완급 조절과 함께 미세한 높낮이와 길이를 달리하며 중첩된 다층다면의 입체는 날 개체의 연결되고 구별된 무리와 무리 간의 경계가 혼재한 형태이다. 집적된 반복형태는 동일성과의 연결, 차이성과의 구별을 형상화한다. 비가시적인 내면인 무형의 것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운동감과 밀집도의 완급을 달리하며 같은 형태 또는 대동소이한 유사형태는 연속적으로 배열된다. 미세한 차이를 동반한 단순함의 반복 속에서 집적된 형태는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유발시켜 커다란 윤곽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형태의 밀집에서 집중과 분산의 배치는 갖가지 불균형하게 편중된 사회적 불평등 현상과 관념들의 치우친 현상을 나타낸다.

표현은 날 개체가 되풀이를 통해 끝없이 계속되는 ‘연결’과 ‘반복’과 ‘집적’의 형태인 외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인 ‘복잡 계(complex systems)’에는 혈관처럼 세밀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진 반복과 집적의 형태가 보이고 인간과의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읽힌다. 반복된 집적의 형태 표현을 바꿔 말하면, 특정 힘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는 획일적 복속이 오늘날 세계화로 재현되고 있다는 메시지이다. 즉 세계적 동일화의 형상화이다. 같은 것의 창궐을 직접 표현한 형상이며 역으로 다른 것이 배제된 것의 의미기도 하다. 동일화는 보기, 사고, 행동 모든 방식에서 다른 타자를 제압하며 효율적인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리고 소모적인 타자가 되게 만든다. 무색, 또는 단색조의 오브제가 반복적인 형태로 연결된 표현에는 단일성에 수렴되는 동일성의 재현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압박되는 순수성과 차별의 횡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무심히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상상의 자유와 다양성의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편견과 차별로 대리되는 타자인식이 내재하며, 반복된 연결과 구별관계의 집적은 편견과 차별의 소산이자 그 현상이다. 차별은 늘 인간에게 비교와 불안을

부추긴다. 그래서 남(구별되어야 할 타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연결되어야 할 타자)이 되어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인 양 암시한다. 그런 암시는 지정된 사회적 전형을 수없이 답습해야 하는 모형의 인간이 되도록 유도한다.

2) 표현 연구

· 시각적 일루전과 물성의 감각적 변이

입체적으로 구현된 오브제의 다층 다면적인 형태는 관찰자의 시선이 머무는 위치가 바뀔 때 따라서 변화되는 형상으로 포착된다. 동시에 오브제의 물성 또한 변환되는 일루전이 일어난다. 시각적 영역 안으로 촉각적인 감각을 끌어 들이는 물성의 전이는 시선의 움직임을 따라 전개되는 변화와 동행한다. 오브제는 관찰거리의 원근과 사방으로의 동선에 따라서, 시점은 이동되면서 시선에 잡히는 대상 또한 본래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물성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집적된 반복 형태가 이루는 다면들이 입체적으로 형성한 밀집도의 차이와 높낮이의 차이로 인해 다각도의 시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관찰 시점의 이동이 있을 때 다면으로 구축된 오브제의 물성은 물론이고 이미지의 강약과 형태도 다르게 보이도록 의도한다. 오브제의 미세한 차이를 가진 형태가 반복적으로 쌓여 이룬 집적은 형태의 변모와 물성의 변이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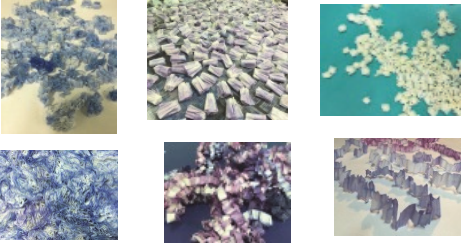
집적된 거시적 형태를 구성하는 미시적 개별체로서 오브제의 낱낱은 공통분모를 가진 '동일 무리' 안에서 각각 동일 물성, 모양, 길이, 색깔, 크기, 등의 갈래에 따라서 분류된다. 이러한 동일함의 토대 위에 부여되는 차이의 요소들은 반복의 기제를 통해 적층으로 쌓인다. 반복으로 집적된 적층은 개체와 개체의

미세한 사이 즉, 간격을 공간과 시간으로 건설한다. 이 사이라는 간격에서는 빛과 함께 ‘멀고-가까운’ 그리고 깊이와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시각적 변이가 일어난다. 오브제 낱낱은 일정한 반복에 의해 구축되고 모두 같은 듯 보이지만 결코 전적으로 일치하는 낱 개체는 없다. 개체의 반복은 다양한 차이를 성립시키는 조건들에 의해 거시적 변화를 도출하게 된다. 동일한 개체는 집단을 이루도록 대량으로 그리고 종류별 군집으로 분류된다. 차이의 요소가 발생하는 선행 작업(실험)을 거친 후, 선택된 것을 화면 위에 심는 방식으로 작업은 이루어지고 변화를 생성한다.

다음의 【표1】은 연구 작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종이와 비닐 오브제 낱 개체의 형태 및 물성에 대한 다각도의 실험들로 도출된 일부의 결과들이다. 다면으로 겹쳐지는 겹의 간격이 멀고 가까운 정도에 따라 만들어질 공간과 빛의 조화를 고려하며 미세하게라도 차이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동일한 물성을 반복해서 겹치는 표현방식은 오브제에게 주어진 차이의 요소들에 의해서 시시각각의 변모와 변이를 잘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더구나 상황에 따른 변모와 변이의 일루전은 물성의 본질적 변성이 아니라 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다층다면의 적층은 변환된 물성으로 시각의 착각(optical illusion)을 통한 가시성의 범주 속으로 촉각의 감각을 포함시켜 실재함을 경험케 한다. 이미지와 결합된 비닐의 경우, 색다른 물성으로의 변이는 이미지의 선명도와 형상에도 영향을 주어 관찰 시점의 변화에 따른 변형을 일으킨다. 표현 기법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심사숙고하며 의도했던 바는 오브제 본래의 실체를 의심케 하는 장치로서 구현방법의 유효성과, 표현형식의 동기이고 논리이자 그것의 이행 수단인 반복적 형태의 합일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낱 개체의 본래 물성과 형태가 연결을 이루는 과정은 작품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즉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한다. 전체적인 방향이 있을 뿐 세밀한 표현들은 작업하는 매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맡긴다. 본 연구자 역시 또 다른

자신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과거자신의 소멸’과 동시에 ‘현재 자신의 생성’을 매순간 경험하며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오브제 낱 개체의 형태 및 물성에 관한 사전 실험	
종이 오브제	비닐 오브제
	

· 이미지 차용

주로 구체적 형상이 없는 작품이 본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미지가 사용된 몇 작품의 경우에도, 이미지는 직접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되는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여 차용하고 조작하거나 재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누구나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미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미지 차용 방식은 거짓 혹은 확대 재생산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목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정보에 대한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중복사용자로서의 활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나타낸다.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6】에서는 뱅크시의 작품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그의 작품 메시지와 그에 대한 존경심을 차용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뱅크시도 Keith Haring과 Jean Michel Basquiat의 작품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

에 차용함으로써 homage하며 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예술작품이 차용, 수정, 복사되는 것을 막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술연구나 행동주의를 위해서 더욱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독점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¹⁵⁾ 그가 작품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Stencil Graffiti’는 재생산이 가능한 공판화 기법의 일종으로 동일한 모양을 비교적 빠르고 일정하게 찍어낼 수 있는 표현이다. 그 역시 반복이 가능한 방식이다.

대개의 미술지망생들이 똑같아지기 방식의 규격화된 담금질 속에서 ‘다름’이 다듬어져 ‘같음’이 되는 잠재력 손실을 경험한다. 구태여 동일해지는 기술에 몰두할만한 큰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우리는 전승된 사실주의에 대한 기대로 지배된 화면에 길들여져 잘 그린 것을 보여주고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에서 이 우환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작가가 화폭을 자기가 경영하는 식민지로 보고 자기의 생각을 모두 펼치는 것이 근대주의다. 특정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받는 것은 근대주의다. 현대미술은 그렇지 않다. 특정개념으로 채운다거나 지배하지 않는다. 현대미술은 상대와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화폭이라는 제한된 면, 장소에 이미지로 가뒤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속에서 호흡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시각예술은 완성된다. 또한 이우환은 최소의 표현으로 보다 더 많은 주변부를 끌어들이는 것을 ‘여백’이라고 정의한다.¹⁶⁾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가 무조건 그리는 방식의 거절에 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선 2절 1항에서 밝힌 내용으로 부연하면 창작에서 그리던 만들던 어떻든 간에 신체행위를 동반한 제작의 중요성은 이미 논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같아져버리는 다채로운 다름의 상실은 경계할 문제라는 생각

1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642440&memberNo=45998005&vType=VERTICAL>

16)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우환 화백),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https://youtu.be/rxNy7gpMt2o> 에서 발췌

이다. 평소 익숙하게 여긴 당연한 것이 불현 듯 다른 빛으로 비춰지게 하는 데 예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방식의 시도로 조화로운 음률을 들려주거나 신비로운 화면이나 영상미를 선사함으로써, 일상의 틀을 깨뜨리는 새로운 언어는 일깨워진다. 예술은 권태감 없는 독특한 관점으로 대상을 조명하여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경이로운 감동을 안겨준다. 예술가는 이러한 맥락을 읽어낼 줄 알며 연구에 집중해 왔다고 마커스 가브리엘은 말한다.¹⁷⁾ 가장 편하고 안전한 표현 방식은 이미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반면 낯선 표현 방식의 시도는 담보되지 않는 성공뿐 아니라 저항감마저 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 연결과 개입의 유도 (Nudge)¹⁸⁾

작품을 단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시점의 이동을 유도하고 작품에 개입하며 공간 속에서의 흐름을 유발한다. 설치작품은 생각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nudge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되는 행동양식을 보게 한다.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 주어진 매개체를 통해서 수동적 혹은 능동적인 행위의 개입을 유도하는 구조로 오브제의 장치를 설치한다. 본고의 관찰 기록은 참여자의 수가 소수였고 참여자들의 제각기 다른 흥미로운 양상과 반응 또한 일반화할 수 없는 현상임을 밝혀둔다. 생소하고 낯선 것을 마주하는 자세에서 흥미롭게 주시된 것은 ‘환대와 거절’의 행태에 타인의 선택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타인의 동정을 살피며 ‘거절’하거나 ‘환대’하는 참여 자세를 보였다. 타인의

17) 마커스 가브리엘 Markus Gabriel,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오노 가즈모토 편찬, 김윤경 역, 타인의 사유, 2020, p.280.

18) 시카고 대학교 교수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카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의 저서 『Nudge』에 등장한 개념. 상대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선택설계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사람들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nudge를 제시하였다. nudge는 사람들에게 특정행위를 강요하거나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자유주의적 개입이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4346434&categoryId=31531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동조현상’을 엿볼 수 있다. 주체적인 사고이든 아니든 일정정도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방식일 것이다. 물론 설치 작품의 nudge의 역할에서 타인의 선택과 개입은 전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직접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과 부정적인 의도에 의한 활용 가능성은 비판의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체적인 사고의 유무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도되는 nudge의 개입은 일상적 무사유와 맞닿을 때, 잠재된 악의 평범함이 확산되기에 유효한 장치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오랜 병폐들은 무의식에 새겨져 있다가 자극에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한 의미가 있다. 칼 구스타브 융 Carl Gustav Jung¹⁹⁾은 집단무의식은 수면 아래 이어진 빙산처럼 눈에는 띄지는 않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무의식은 인식 과정의 순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할 틈도 없이 행동양식으로 발현된다. 겉모양새의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는 속모양은 무의식의 자극에 반응하며 숨겨진 본모습을 드러낸다. 무의식에 새겨진 그들은 낯선 차이라는 자극에 차별로 즉각 반응을 드러낸다. 타자를 차별함으로써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 파악을 통한 자신의 ‘변’이라야 관계 안에서 결으로서의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 칼 구스타브 융 Carl Gustav Jung, 1875-1961, 정신의학자,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카를_융)

Ⅲ. 작품 설명

프랑스어인 FOULE, VAGUER, FLOT, ONDE, ‘물결’이라는 의미로 모두 관통되어 있다. 각 단어마다의 개별적 의미는 각주에서 별도 표기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본 연구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성장의 지역적 환경이었던 상공업단지는 노동 문제에 자연스럽게 이입되게 한 배경이다. 1970-80년대 학교현장은 강압적인 통제의 비인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성교육은 부실한 주입식 교육이 행해졌다. 그 시절 모두에게 흔한 풍경이라고 위로하더라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의 아픈 단면이다. 늘 빛에 허덕이며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아 전전하는 영세사업가, 혹은 노동자, 상인들, 이주민노동자들, 이런 이웃의 모습은 대개가 주변인들이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았던 유년기로부터 청년기를 거치며 사회와 약자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은 깊어진다.

두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지내며 보낸 몇 해는, 본 연구자로 하여금 청년기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자신과 낯선 타자를 보게 하는 기회와 의미를 제공해 주었다. 2004년부터 몇 년 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NGO단체에서의 자원 활동과, 지역복지관에 연계된 학대아동미술치료와 상담활동은 본인의 무력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모 시립 정신병원에서 심리치료 임상기간 동안 갖게 된 입원 환자들과의 만남은 본 연구자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상 모든 짐을 도맡아 안은 피폐한 바닥인생들이 모여 있었다. 타자를 정신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위력은 여러 모양으로 위장되어 지배력의 유효성을 열정적으로 강화하고 정당화시키려 든다. 지배력에 통제되어 무력화된 타자들이 노예화 된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거대한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 크고 작은 집단 간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본 연구의 작품은 이러한 경험과 사고, 감정의 혼란 속에서 이뤄진 작업 중 일부를 담고 있다.

FOULE 20) 시리즈

< FOULE_1 >



【작품1】 FOULE_1,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1_1】 FOULE_1, 상세

【작품1】은 소녀를 통해서 본 반복되는 현재진행의 근대적 동일성을 담은 작품이다. 전쟁의 참혹한 고통은 아직도 소녀를 옥죄고 있다. 오직 소녀만이 그 고통을 온전히 알 것이다. 반인륜적인 전범 피해자의 고통 값을 타자가 함부로 계량할 수는 없을 터이다. 보상이 아니라 반드시 사죄가 전제된 배상이어야 마땅할 것이며 한국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인정이 모든 사안의 뿌리이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모든 불법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과거의 편협한 야만의 환상에 갇혀 현재를 산다. 소녀의 고통, 일본이 서구적 근대화를 지향했던 식민주의에 대한 남다른 입장에 우리는 서 있다. 오늘의 소녀들에게로 전승되어 현재시제로 관통된 진행형의 문제와도 몹시 밀접하다. 타자를 정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근대적 지배성의 반복이다. 도덕적 수치를 상실한 국가의 거대시선은 타자를 대하는 관점에서조차 동일한 시선을 견지한다. 전쟁은 양자 모두에게 상처다. 파농은 베트남을 소년과 여성을 혈값으로 살 수 있고 베트남의 옛 화폐 piaster

20) foule: 프랑스어, 1.압축, 압착, 2.억압, 압제, 3.교차된 낱살 사이의 복이 지나가는 통로, 4.물결, 5.군중, 6.명사(한 장소에 모인)군중, 청중(=multitude, assistance, auditoire), 7.명사: 민중, 대중(=peuple), 8.명사: 다수, 많음 (=grand nombre), 물결: 명사 vague, flots, ondulation, onde,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와 인력거의 나라로 묘사하는 직업 군인들을 떠올리며, 베트남의 남성들이 왜 그토록 분노하며 투쟁하였는지를 납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²¹⁾ 오늘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시 소비하며 착취하는 방식은 혁신에 맞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에 대한 지배적 시선과 폭력 본성은 구태의 답습을 거듭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식민지시대 소녀의 유린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지난 시대의 공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FOULE_2 >



【작품2】 FOULE_2,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2_1】 FOULE_2 상세

【작품2】는 사회적 어른이 부재한 사회와 대를 이어 반복되는 고통의 되풀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해자는 결코 멀지 않은 곳에서 은밀히 오래도록 반복해서 고통을 주는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의 두려운 이들이다. 거기에 더해진 타인의

21)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문학동네, 2014, pp. 218-219.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1925-1961) 프랑스령 앙티유 제도의 마르티니크 섬, 아프리카계 흑인 아버지와 흑백 혼혈 몰라토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 유복하게 성장하며, 의대에서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문학, 철학, 인류학 등을 공부한 파농은 1952년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출간한다. 1957년 튀니지로 건너간 파농은 은밀하게 돕던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에 공식 가담하게 되고 알제리혁명의 지도적 이론가로 이름을 알린다. 사망한 1961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출간하였고, 1964년 파농의 여러 글들을 묶은 『아프리카 혁명을 향해』가 출간된다.

외면과 전시는 이 두려운 이들의 학대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무언의 공범행위가 된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회적인 책임의 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은 대가는 혹독했다.²²⁾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돌봄은 부재하고 구타와 차별이 일상이었던 아이는 피난처가 없었을 것이다. 부모와 선생님에게서 조차 미움의 시선을 받아온 아이가 내면에 키워온 것이 무엇이였을지 상상이 된다. 한 아이가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가난하고 열악한 양육 환경과 장애로 소외된 아이는 가정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돌봄이 늘 위태롭다. 주변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항상 외톨이로 분리되어 있다. 어른다운 어른이 아이들 곁에 없다. 어른에게서 이어받은 고통을 답습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생채기를 내가며 험한 세상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 생채기는 누적된 파괴적 긴장을 신속히 완화시켜 준다. 건설적인 갈등의 처리과정을 통해서 안정된 관계와 정체성은 성립되고 성숙한다. 오늘날의 문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갈등의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처럼 자란 아이들은 갈등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강요된 명령과 지배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고장나버린다. 갈등은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지만 일찍이 차단되고 쉽게 무조건의 지배를 요구받는다. 생채기는 고통스런 내면의 공허를 은폐하기 위한 자기 재생산이자 불안한 자아의 자기도 착적인 공회전에 빠진 자기공격이 아니면 타인공격이 된다.²³⁾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일깨움은 오직 갈등을 배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갈등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갈등을 모르는 성인으로 자라 세상에 있게 된다. 어두운 전과가 아이를 또다시 구별된 타자의 길로 들어서게 할지도 모른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22) 본 연구자는 지역복지관과 연계된 <학대아동 심리치료와 상담> 활동에서 여러 학대아동의 심리치료와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내담자였던 아동이 몇 년 후 살인범죄 혐의로 수감된 사건을 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게 된다. 신체장애,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가정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 특히 부모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며, 양육 환경 뿐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 협력과 보호가 없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23) 한병철, *op. cit.* pp.41-43.

전혀 없는 가족도, 배경도,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면회 한번 가지 못했던
나도 여전히 제자리다. 고통의 대물림이야말로 반복이다.

< FOULE_3 >



【작품3】 FOULE_3,
1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3-1】 FOULE_3, 상세

【작품3】에서는 과거 식민지 압제의 ‘가시적 침탈’과 오늘날의 ‘비가시적 경제 식민현상’의 오버랩을 메시지로 담았다. 서구제국주의 중심적 세계관이 압박된 역사는 깊다. 일본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구적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했다. 미 제국주의와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우리를 정교하게 잠식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물리적 침탈 행위가 사라진 오늘이지만 오히려 신식민주의가 되어 공간도 시간도 무의미하게 실존한다. 세계적으로 뿌리가 깊은 미국 문화의 사고와 보기방식은 유기적 연결 관계에서 동조를 거듭하며 경제체제의 식민현상으로 현재한다. 여태껏 많은 사회가 선진 모델로 미국식 사회를 추종해 왔지만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과 제국의 허상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참으로 독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건국 이래 그들은 사악한 지도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처럼 증명하려고 포장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급부상하는 중국과 더불어 사실상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이다.²⁴⁾

하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The banality of the banality of evil]²⁵⁾로 나치의 전범이었던 아이히만 Adolf Eichmann의 재판에 관하여 악이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 잠재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사유한 무비판의 무능함이 인류를 어떻게 학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였는지 일깨워준다. 사유하지 못하는 무능은 악을 무색무미무취로 일상에 잠재하게 한다. 상실된 비판능력은 악의 잔혹한 면모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배자의 지시대로 충실히 따랐던 무사유의 무능한 자들이 독일과 일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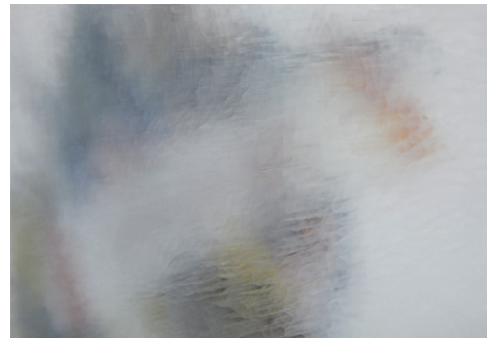
【도판3】
‘The banality of the banality of evil’
Banksy, 2013

< FOULE_4 >



【작품4】 FOULE_4,

100.0×7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4_1】 FOULE_4, 상세

24) 수전 손택 Susan Sontag, 『타인의 고통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이후, 2004, p.134.

25) 하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의 전범재판 과정을 지켜 보고 제시한 개념이다. 【도판3】: Banksy, 1974~, [The banality of the banality of evil], 2013. 뉴욕의 어느 중고 상점에서 평범한 풍경화 한 점을 구입한 뱅크시, 그 위에 나치 독일 군을 그려 넣고는 다시 중고 상점에 기증하였다.

출처: <https://blog.naver.com/puzzlesh3/222271836314>

고단함에 한참을 졸면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공단 입구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공장의 커피냄새에 잠을 깨곤 한다. 늦은 밤 즐비한 회색 공장들 앞의 정거장을 모두 그냥 지나쳐 달리는 텅 빈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져서야 내린다. 가로등도 별로 없어 밤이면 짙은 회색이 되는 도시, 아침이 되면 노동자들의 출근행렬로 붐비던 곳, 언젠가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바깥출입을 심하게 단속하셨다. 일상은 극도로 단조롭고 반복적이다. 사회가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이 후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비주류 인생의 척박한 삶은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이다. 【작품4】는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이룬 성취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매겨진 평가의 불평등을 표현하였다. 누구도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도, 온전히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사회적 성과를 획득할 수도 없다. 개별체로서의 고유한 특유는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한 사회적 서열을 부여받는다. 최소의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동자에게는 비인간적인 기계 노동이 요구된다. 일의 존엄은 물론 일하는 자의 존엄 역시 존중될 리 만무하다. 사회적 취약자의 삶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자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편견은 무고한 사람에게 잔인한 시선으로 상처를 입힌다. 한계가 없는 욕망과 부도덕한 이기심은 기계를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 들였다. 내적 허기와 상처는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충족되는 왜곡된 욕망을 합리화하며 자본의 위대함에 밀린 인간의 숭고한 노동 행위에 비루한 시선을 주게 하였다. 노동에 대한 숭고함을 담은 Jonathan Borofsky²⁶⁾의 시선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정당한가 묻고 있다.

26) 조나단 보롭스키 Jonathan Borofsky, 1942~, 미국의 조각가.

【도판4】 'Hammering Man' 연작 중 서울 에 설치된 7번째 작. 2002, 연작의 처음 작품명은 노동자(Worker)이다.



【도판4】
‘Hammering Man’
연작 중 7번째 작.
Jonathan Borofsky.
2002

< FOULE_5 >



【작품5_1】 FOULE_5, 상세

【작품5】 FOULE_5,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5】는 페스트패션으로 본 세계시장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면서 노동과 노동의 주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물론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또한 평등하지 않다. ‘노동’이라는 일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폄하되고 노동자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 사용하듯 다루어진다. 전 지구인은 차별의 이익을 불평등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각자에게 부여된 필연적인 책임마저 불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간보다 자본은 위대해졌다. 자본은 우리를 그렇게 국경 넘어서 점령해 간다.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는 제국주의가 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전태일의 말에 첨언하자면,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일회용 소모품도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대량 생산방식의 과잉 공급과 저임금 노동 착취로 유린되는 인권뿐 아니라, 훼손되는 지구 환경의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한 것은 그 중심에 한계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스트패션(fast fashion)은 저가, 빠른 상품 회전률, 빠른 유통, 즉각적 유행의 반영으로 과잉소비와 맞물려 있다. 저임금 노동, 아동 노동, 저질 상품과 대규모 의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유발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세계적 지점망의 운영방식은 <똑같은 패션>을 저소득계층이 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인종과 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상을 심어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서부개척시대 ‘청바지(blue jeans)’는 노동자의 상징이었고, 이후 젊음의 대명사가 되었다. 외피는 첫인상 그 이상으로 타자를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상징이다. 비닐은 일회용의 흔한 사용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개의 약자 모습으로 겹쳐진다.

< FOULE_416 >



【작품6】 FOULE_416,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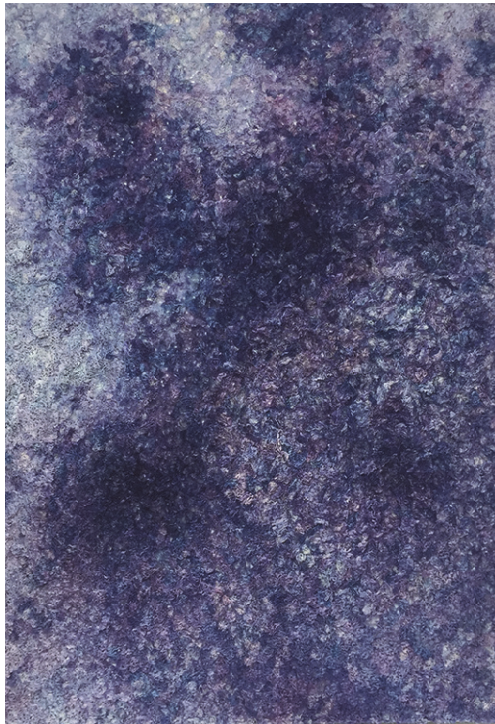


【작품6_1】 FOULE_416,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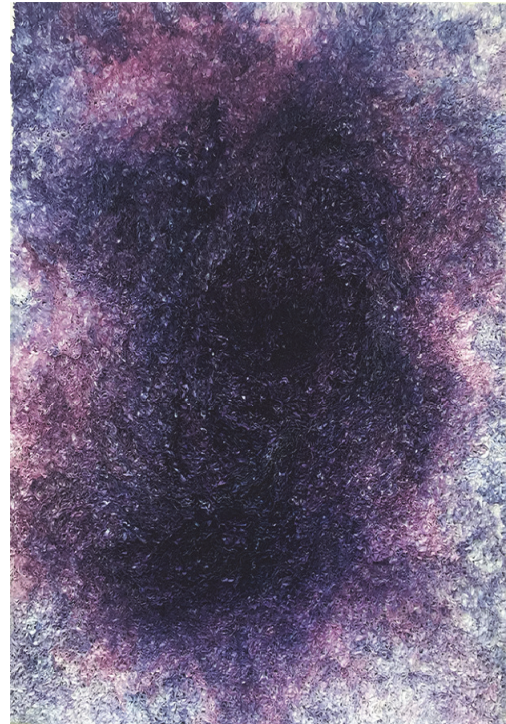
【작품6】에서는 '세월-호'를 통해 느낀 고통의 사회화 은폐를 표현하였다. 완전한 타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시선으로 인해서 소외를 경험한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이들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 있고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고통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얻기 원한다. 소외는 고통의 사회화, 공론화를 가로막아 사유화하고 개인화시킨다. 타인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경청이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며 고통에 대한 위로이다. 경청 없이 오로지 같은 것만 만나는 연결은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관계로서의 타자가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없는 단지 연결일 뿐이다. 소통이 부재한 타자 간에는 고통에 대한 연대가 형성되지

못하기에 고통의 사회성은 간과된다. 따라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번역한 정치화라는 것은 해체되고 무력해진다.²⁷⁾ 고통은 단지 흘깃 보는 것이 되어 버리고 존엄은 유린되며 종종 조롱받기도 한다. 고통에 공감하는 숙연함은 가벼이 여겨지고 사유화된 고통의 공적 메시지로의 호소는 같지 않은 타자에게는 침묵을 압박한다. 무능으로 이어진 무감각한 동일함의 연결은 인간의 마음을 냉담한 사물이 되게 하고 인간성은 소멸되어 간다.

< FOULE_7 - FOULE_10 >



【작품7】 FOULE_7,
91.0×117.0×5.0cm,
유산지, 혼합재료,
2015



【작품8】 FOULE_8,
91.0×117.0×5.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5

27) 한병철, *op. cit.* pp.115-116.



【작품9】 FOULE_9,
50.0×25.0×10.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7



【작품10】 FOULE_10,
50.0×25.0×10.0cm,
배접지, 혼합재료,
2017

【작품7】, 【작품8】, 【작품9】, 【작품10】은 의도되는 미세한 차이의 구별이나 동일성에 대한 밀착이나 모두 동일화로의 귀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과 사물의 경계, 선택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인식과 감정의 사용도 교묘하다. 동일성에 대한 긍정적 연결도, 이질성에 대한 부정적 구별도 결국엔 같은 선상에 놓인 획일성 하나로 수렴된다. 상향편입에 대한 열망인 동시에 구별된 다른 것과의 차별이다. 세계화로 촉진된 방대한 연결망의 네트워크에서 인간은 자본에 의해 쉽게 동일화로 몰려들면서 차별은 더욱 미세해지고 양극화된 불평등은 점점 심화된다. 불안자극을 통해 조장된 동일화 전략의 소산이다.

일상적인 반복으로 쌓인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시간의 집적과 함께 견고한 힘을 형성한다. 미미한 차이는 반복에 의해 거시적인 변화를 토출해 내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일상에 내재한 자기중심적 ‘보기 틀’은 평범함 속에 편향성을 고착시킨다. 동일성의 알고리즘에 유도되는 동조와 더불어 단순 반복성의 작동은 더욱 강화되고 깊어진다. 세밀한 차이는 무수한 반복으로 같은 것의 연결과 다른 것의 차별을 겹겹이 쌓는다. 완전히 낫설고 다른 큰 차이보다 일상의 소소하고 미세한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 차별이 되어 훨씬 두려울 때가 있다. 오브제의 빼곡한 겹의 밀도는 개체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집

적된 강박적인 표현이다. 밀착되는 무-간격은 멀고 가까운 인격적 관계를 소멸시키고 오로지 연결되고자 하는 강박에 의해서만 이어진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상호작용은 형태상 단순히 반복에 의한 연결로 보이지만 연결과 구별의 틀이 연계된 유기적인 것이다. 연결될 ‘유사한 것’과 구별될 ‘낯선 것’을 구분하도록 하는 유도에 의해 더 세밀하게 차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한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늘 구분하는 차별의 일상에 놓여 있다.

- VAGUER 28) 시리즈

< VAGUER_1 - VAGUER_2 >



【작품11_1】 VAGUER_1, 상세

【작품11】 VAGUER_1,

70.0×100×10.0cm, 비닐, 혼합재료, 2016

28) vaguer : 프랑스어, 1.[비유]자동사(생각·시선 따위가 고정되지 않고) 옮겨 다니다, 떠돌다. 2.자동사 [문어]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출처; 동아출판 prime 불한사전,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작품12】 VAGUER_2,
100×70.0×10.0cm, 비닐, 혼합 재료,
2016



【작품12_1】 VAGUER_2,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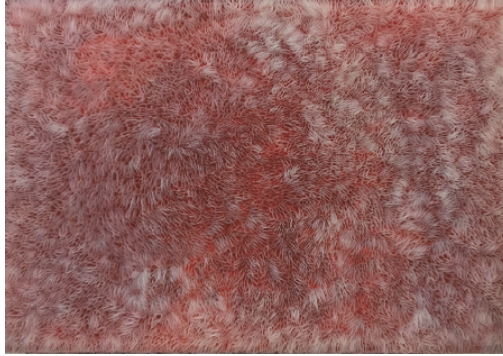
【작품11】, 【작품12】는 백색의 세상이 최고이고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과 가공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작품이다. 누군가의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쪽 면모가 진실인지, 애초에 진실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선량한 이웃이던 사람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겐 쉽게 무례를 행하고, 고용주가 되면 피고용인, 그중에서도 특히 검은 피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 변하는 두 얼굴은 이미 알고 있던 이전 모습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피부색과 빈곤이 모욕과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설득되지 않지만 지배와 피지배의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가능한 일이 된다. 두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목도한 사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교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그들 삶의 터전에 들어간 타국인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별적인 관계가 발견된다. 그것은 과거 청년시절의 기억과 겹쳐지며 유보된 시간처럼 기억 속 차별이 재출현하는 것이었다. 하얀 세상에 대한 동경과 선망에서 비롯된 차별과 약자에 대하여 표현해 보았다. 편견이 작동된 지배논리는 빈곤과 부유 사이에서, 백색으로부터 무수한 중간색과 흑색 사이에서 차별 관계가 형성된다. 빈곤한 검은 피부는 자기의 땅에서조차 차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타인과 다르고자 한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동-형성으로 같음은 다름을 관통하여

계속 고수된다. 다름의 진정성은 도리어 억압되는 획일화보다 효과적으로 동-형성을 관철시킨다. 전적인 타자의 부정은 같은 것의 긍정, 같은 타자의 긍정성에 밀려난다.²⁹⁾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한낱 허상이다. 단색의 순수한 단일성을 지키려는 것은 배타적인 결벽이 된다. 자기 담론이 부재한 압박된 순수성은 획일적 동일성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순수를 요구하고 억압할수록 추악하기 쉽다. 인종의 순수성, 종교의 순수성, 성적 순수성을 주문하고 다른 타자를 억압하는 이들은 늘 폭력으로 내면의 혐오와 증오를 드러낸다. 제노사이드의 중심에는 항상 인종, 혈통, 종교, 문화, 젠더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 동일함의 공통분모를 가진 동종의 무리 속에서 개개의 미세한 차이는 차별되기 십상이다. 유색인에게는 흰 피부에 대한 동경, 선망이 있다. 유색인종 의식의 밑바닥에는 하얀 인종에 대한 백색신화에 물든 식민지의 초상이 깔려있다. 파농은 흑백 결합의 변수에서 백인/흑인의 경계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심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유색인/흑인의 경계도 문제시 한다. 스스로에게조차도 희지 않으면 부정되는 유색인의 존재인식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동의되는 지점이다. 주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는 유색인의 자기의식이 무엇보다 견고한 굴종과 모욕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간 지대를 벗어나 선망하는 존재의 자리로 상승하려는 것이 유색인들이 원하는 지위 획득이다. 그들과 같은 언어로 말하고자 하고 그들과 같은 문화를 향유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따라하려는 것은 흰 사람으로 선택된 자임을 확증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백색의 환상은 순수한 것, 그 이상의 청정한 종교적 신념으로도 확장되고 이상화된다.³⁰⁾ 결국 상대적인 관계에서 더 어두운 타자를 차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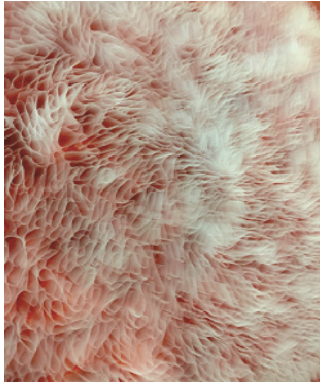
29) 한병철, *op. cit.* p.35, p.37.

30)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 *op. cit.* pp.262-263.

< VAGUER_3 - VAGUER_5 >



【작품13】
VAGUER_3,
100×70.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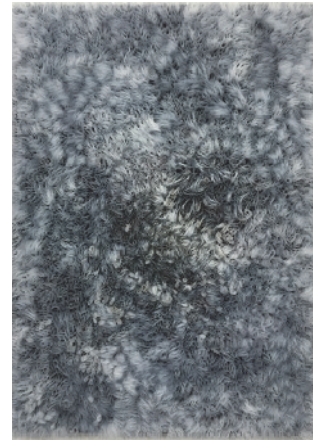
【작품13_1】 세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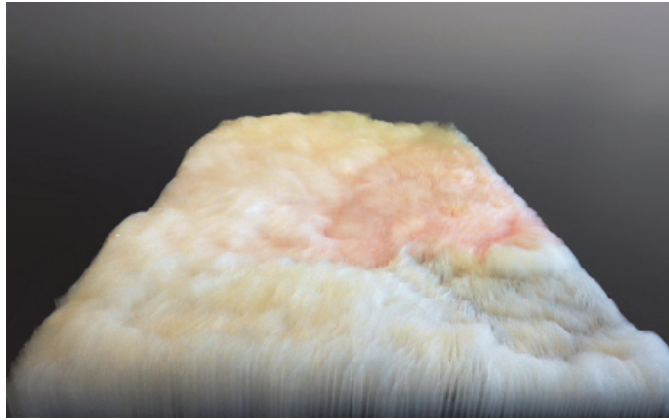
【작품13_2】 세부2



【작품14】 VAGUER_4.
116.8×91.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측면)



【작품14】 VAGUER_4.
(정면)



【작품15】
VAGUER_5,
97.0×162×15.5cm,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15_1】 상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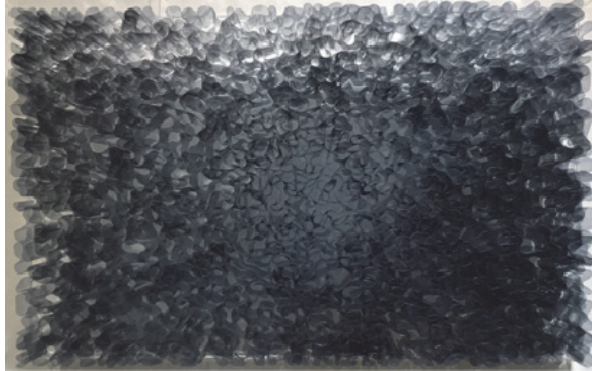


【작품15_2】 상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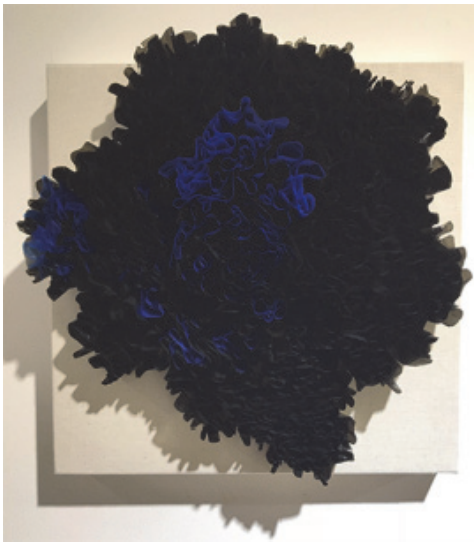
【작품13】, 【작품14】, 【작품15】는 약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의 유기적 연결을 표현한 것이다. 갈수록 복잡 미묘해지는 시공간의 모호한 경계와 사람들의 끊임없는 ‘구별 짓기’가 혼재하는 가운데 보이는 세상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반복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세상의 유기적인 연결에 있어서 반복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비닐 낱장은 매우 가볍고 실체가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그 물성이 투명하고 얇다. 다른 물성을 통하지 않거나 빛을 반사하지 않고는 자신의 불완전한 가시성을 확증시키기 힘들다. 무수히 많은 낱날의 비닐이 집적되어 군집을 형성하면 실체가 실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물성으로의 일루전이 일

어난다. 날개체로서는 제가치가 흐릿하지만 타 개체와의 공존과 빛을 통해서 존재가 명징해진다. 이는 본디 비닐이 가지고 있던 가치의 외현과 가시성이 확보된 것일 뿐 비닐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날개체로 갖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타 개체로 인해 관계적 면모가 생성된 것이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한 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하지 않은 일과 미처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갈수록 복잡하고 긴밀한 연결망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이들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횡포를 서슴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다. 인권유린과 환경 파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은 전 지구적으로 약자들을 착취하며 권리를 강탈하고 책임과 피해는 남에게 전가한다. 태양과 공기와 구름을 모두가 공유하듯 쏟아지는 비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피할 곳조차 없이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취약한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보다 더 가혹한 재앙이 된다. 구름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지만, 역사 이래 결코 같은 구름이 존재하지 않았듯 세상의 갖가지 다양한 반복은 마치 구름과 같다. 오늘날 세계사회는 지상의 수증기가 공중으로 모여 응축된 수분덩어리인 구름처럼 보인다. 이익의 분배에는 지극히 불공평하고 피해와 고통의 분담에는 불공정하다. 인터넷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가 자본과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곧 정보의 차이와 맞닿아 있다. 가상공간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물리적 현실공간의 차이와도 밀접하게 이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문화적 경향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피로감, 실존하는 현실공간에서의 고립과 가상공간으로의 유입은 서로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양면적인 공간에서 경계와 경계 사이를 무감각하게 넘나들 수 있는 세상에 있다. 움직임 없는 현실공간 속에서 가상공간의 이동에 대한 무지각은 일상의 경험에 빈번한 감각의 환상을 부여한다. 무지각으로 감각의 주체와 객체는 호환되고 혼재한다. 사람들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의 끊임없는 ‘구별 짓기’에도, 시공간의 감각이 뒤섞여 혼재하는 모호한 경계 속의 세상에도 쉼 새 없이 반복은 작동되고 있다.

< VAGUER_6 - VAGUER_8 >³¹⁾



【작품16】
VAGUER_6,
50.0×35.0×5.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17】 VAGUER_7,
25.0×25.0×8.0cm, 비닐, 혼합재료, 2016



【작품18】 VAGUER_8,
27.0×28.0×6.0cm,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16】, 【작품17】, 【작품18】은 빈곤, 여성,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평범하게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 시리즈이다. 뒤 이은 【작품 15】와 【작품 16】역시 같은 맥락의 작품들이다. 연구자의 이주노동자들과 직간접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노동과 인종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맑은 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일상이 혜택이고 특권일

31) 시리즈 중에서 연이어 설명되는 <VAGUER_9, VAGUER_10>과는 특히 상호 연관성이 짙다.

수 있다는 것은 그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무시해 온 잠재된 차별의 평범함이다. 공평하고 당연한 것의 이야기가 혹 불편하다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다. 차이는 세밀하며 차별은 모순되고 견고하다. 오랫동안 살았던 공단에 1990년대부터 모여든 외국인노동자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어두운 피부의 남성외국인노동자들은 생경하고도 다소 두려운 타자로 기억에 남아있다. IMF 사태 이후 더 나은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영세한 하청업자들 틈에 우리도 있었다. 10대말-20대를 모두 뒤덮어버린 녹록하고 우울한 설명하기 힘든 어두운 감정과 불편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혼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불모지에서 이방인으로서 겪는 경험이란,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주고받게 한다. 편견은 <저개발-빈곤-어두운 피부색-혐오>을 차별의 이유로 지배적 사고를 합리화한다. 편견은 좀처럼 깨지기 어렵다. 존 버거(John Berger)는 『제7의 인간』에서 유럽의 이주민노동자들의 경험을 지구전체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밝히며 <꿈과 악몽>의 이중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이주민노동자들은 이전의 식민지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똑같이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남성뿐 아니라 가사노동에 고용된 여성이주노동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록한다. 경제성장기 우리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와도 흡사 겹쳐지는 광경이다. 이주민의 희망이 너무도 높아서 꿈이라는 이름은 심히 약하고, 현실이 가혹하여 악몽이란 이름은 너무도 약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한다.³²⁾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삶에 놓인 것처럼 사회적인 근거가 거역하기 힘든 거대한 틀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물은 가공이 없이 원초적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다양성에 포용적인 사회는 전체를 위한 공동체성과 구성체로서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개별체성’을 격려한다. 타자와 외계는 충분히 다채로운 반면, 외계와 타자를 향한 시선은 획일하고 자유는 충분치가 않다.

32) 존 버거 John Berger, 장 모르 Jean Mohr, 『제7의 인간』, 차미래 역, 눈빛, 2014, pp.5-6.

< VAGUER_9 - VAGUER_10 >



【작품19】 VAGUER_9,
25.0×25.0×8.0cm,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20】 VAGUER_10,
28.0×28.0×9.0cm,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19】, 【작품20】에는 약자에 대한 지배적 사고를 합리화시키는 차별로서 빈곤, 인종, 저개발 등이 낳은 불행을 표현하였다.

‘The Man Who Sang and Woman Who Kept Silent’ -Judith Mason

“자매여, 비닐봉지가 신이 주신 갑옷은 되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이 야비한 땅에서, 그대는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면서 권력과 어둠의 통치자들, 그리고 악한 영혼들과 맞서 싸웠다. 그대의 무기는 그대의 침묵과 한 조각 쓰레기뿐이었다. 그대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비닐봉지를 구해 바지를 만들어 입은 그대의 모습은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주부의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이다.....그대의 행동에 부끄러워진 포식자들은 그대의 옷을 두 번 다시는 벗기지 못했다. 대신 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우리는 포식자들의 키득거리는 입을 통해서 그대의 진실과 그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대의 용기를 기리는 비닐봉지는 이 세상 어디에나 널려 있다. 그 비

비닐봉지들은 거리 곳곳에서 바람에 날리고, 파도에 떠밀려 다니며, 가시덤불에도 걸려 있다. 그 비닐봉지들을 모아 이 드레스를 만들어 그대에게 바치거나니 잘 가요, 투사여!” - 헌사 33)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파란비닐봉지로 맞닿은 교감과 비닐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의미로 헌사를 신는다. 인종 이데올로기의 지배논리가 부당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참혹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맞섰던 수많은 투쟁에는 미처 기록되지도 알려지지 못한 진실들이 승자의 역사 속에 잠들어 있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무력투쟁하다 1988년 고문으로 사망한 필라 은드완드웨³⁴⁾의 비닐바지는 충격적이었다. 시신 발견 당시, 발가벗겨진 상태로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돌렸던 파란 비닐봉지로 만든 비닐바지가 골반에 감겨져 있었다. 필라의 파란 비닐바지는 예술가 주디스 메이슨에 의해 조각조각 이어져 블루드레스로 재탄생되었다.³⁵⁾

다음 【표2】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여 부연한다.

【도판6】 - 【도판10】은, 본 연구의 시초가 된 노동과 노동자와 식민지인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본 연구자의 작품들이다.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은 시간 속에서 반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어진다.

33) 알비 삭스 Albert “Albie” Louis Sachs, 『블루 드레스: 법과 삶의 기묘한 연금술 The Strange Alchemy of Life Law』, 김신 역, 일월서각, 2012, pp16-17.

주디스 메이슨(Judith Mason 1983~, 예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34) 필라 은드완드웨 Phila Ndwandwe: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민족의 투창’ 소속으로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무력투쟁에 참여했다. 1985년 아프리카민족회의에 가입한 후, 1988년에 보안경찰에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살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가해자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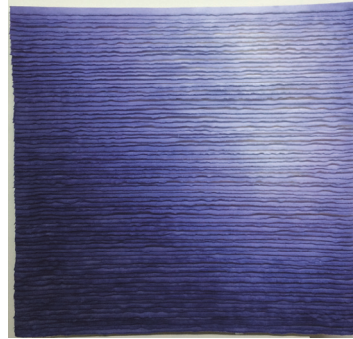
35) 알비 삭스 Albert “Albie” Louis Sachs, *op. cit.* p.15.

; (알비 삭스 Albert “Albie” Louis Sachs)는 남아공 출신으로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반인종차별주의의 투사로 살았다. 자동차 폭탄 테러로 한 팔과 눈 하나를 잃었으나 굴하지 않고 남아공의 민주헌법을 준비하는 매진하였다. 1994년에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넬슨 만델라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그가 내린 판결들은 세계 헌법재판 역사에 특히 귀감이 되는 의미를 남겼다. 그는 또한 예술과 건축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요하네스버그의 올드포트 교도소(Old Fort Prison) 부지 위에 헌법재판소를 세우고 소장할 예술품을 수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https://www.concourt.org.za/index.php/11-former-judges/65-justice-albie-sac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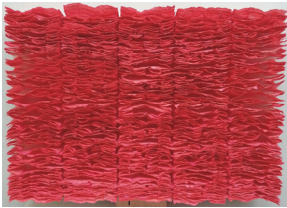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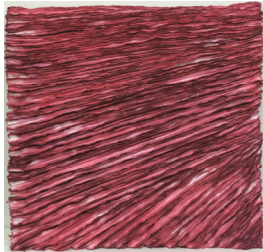


【도판5】
 ‘The Man Who Sang and
 Woman Who Kept Silent’의
 연작, Judith Mason,1995.



【도판6】
 90.0×90.0×3.0cm,
 한지, 혼합재료,
 권 혜정, 2014

【표 2】 본 연구자의 연관 선행 작품

 <p>【도판7】 지름 90.0cm×3.0cm, 한지, 혼합 재료, 권 혜정, 2014</p>	 <p>【도판8】 58.0×56.0×1.5cm, 한지, 커피, 혼합 재료, 권 혜정, 2013</p>
 <p>【도판9】 50.0×38.0×9.0cm, 종이, 혼합 재료, 권 혜정, 2013</p>	 <p>【도판10】 54.0×53.0×3.0cm, 한지, 혼합 재료, 권 혜정, 2014</p>

【도판6】, 【도판7】은 <면화 농장의 흑인 노동자-서부개척시대 노동자의 작업복 청바지>로 이어지며 청색을 주로 사용한 반복의 ‘겹’이다, 이 것은 비닐오브제의 소재 확장과 함께 본 연구 내용의 근대적 산업화의 일회용적 소모품으로

대리되는 약자의 의미로 연장된다. 【도판8】은 세계인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축된 차 문화 시스템, 특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에서 배제된 커피노동자에 대한 불공정을 담고 있으며 커피로만 채색한 작품이다. 특히 편견과 차별에 대한 고찰은 인종 종교, 노동문제에서 블랙과 청색의 비닐로 껍을 같이 하며 연결된다. 붉은 색을 사용한 겹 【도판9】 , 【도판10】 은, 화려하게 보이는 상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이면에 숨은 아동노동에 관한 비극을 담고 있다. 특히 【도판9】에서 사용한 종이는 일회용 빵 봉투이다. 온종일 돌을 깨고, 카펫 공장에서 멋진 카펫을 짜고,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페스트패션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다. 반복형태가 의미하는 것이 노동과 같은 반복 행위이다. 이 아동들에게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방식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극은 그런 구조가 너무나 거대하고 강고하며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은 반복을 통해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이행된다.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게는 더없이 가혹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시대 노동자는 지배국의 식민지인이었고, 근대 산업혁명을 이끈 노동에는 아동과 여성노동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작은 손이 필요한 일이나 좁은 곳의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아동의 몫이었다. 전쟁에 동원된 남성들이 비운 산업현장의 고된 노동 역시 주로 여성과 아동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2차 대전 후 피폐해진 경제극복에 이민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주요했고, 이런 신식민주의가 경제체제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배타적인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이기심에 굴복하지 않으며, 다양한 차별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자본의 횡포와 노동의 강탈을 멈추는 것이다. 모순은 더욱 섬세해졌고 기득권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실에서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대는 희미하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릴 것 같은 어둠만큼이나 고통은 깊고 무겁다.

FLOT 36)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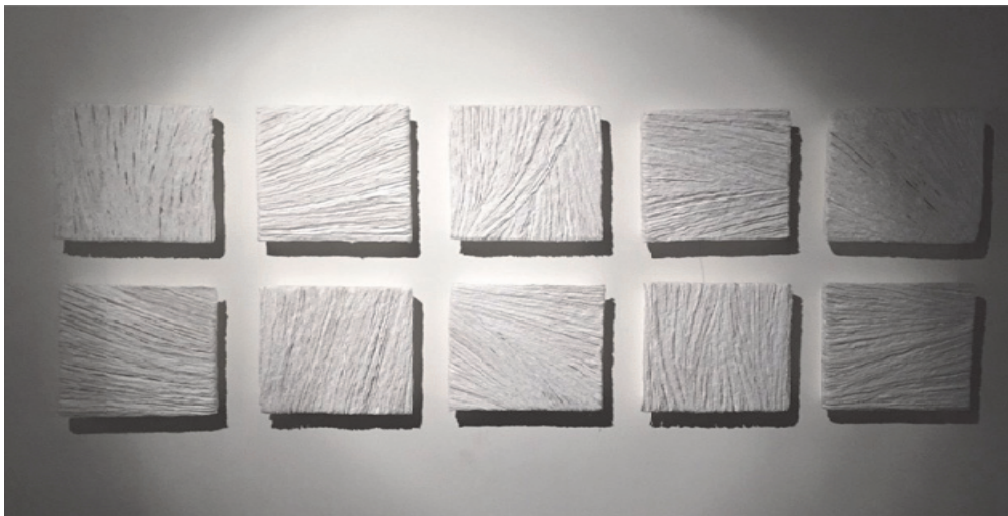
< FLOT_1 - FLOT_4 >



【작품21】

FLOT_1

54.0×54.0×5.0cm,
비닐, 혼합재료,
2015



【작품22】 FLOT_2

30.0×30.0×5.0cm, 10ea, 장지, 혼합재료, 2015

36) flot: 프랑스어, 1.명사; 물결, 파도, 바다, 2.명사; (흐르는)물, 밀물, 만조 3.명사; 물결 모양의 것, 물결치듯 하는 것. 4.((비유적))다수, 다량;(다수·다량의)움직임, 흐름.(출처: 불문학회 불한사전)



【작품23】
FLOT_3
164×100cm,
장지, 혼합재료,
2015



【작품24】
FLOT_4
164×100cm,
장지, 혼합재료,
2015

반복된 결은 타자로 인한 관계역동이자 상호 간에 인식되는 타자에 대한 각성이다. 선과 선의 미세한 틈의 골은 경계이면서 리듬을 같이하는 흐름이다. 일상의 지루한 연속은 미시적으로는 대동소이하지만 거시적인 변화를 만드는 차이 나는 반복이다. 단조로운 단색의 반복은 양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작품21】, 【작품22】, 【작품23】, 【작품24】는 존재의 획일성, 종교적 신념의 단일성으로 드러나는 반복(동일함)을 표현하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함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난을 견뎌내도록 돕는

다. 반복적인 일상은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로서 직면해야 하지만,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종교는 천국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을 기적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도피처가 된 믿음은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며 가공된 허상을 쫓아 연결하거나 구별하게 한다. 종교적 신념은 종종 극단적인 광신의 형태로 변질되어 다른 타자에 대해서 더 배타적이고 위협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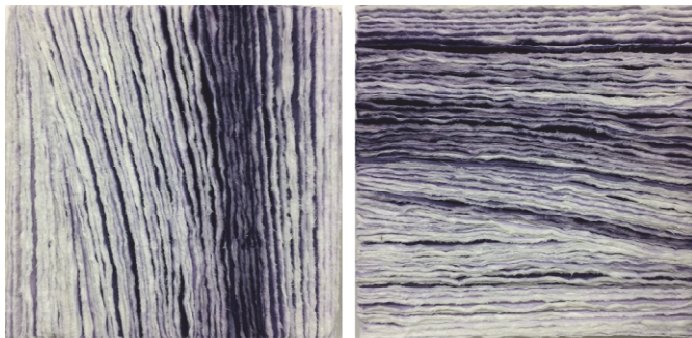
지속적인 <같이 만들기>는 모든 것을 비교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비교불가의 단독적인 존재로서 타자의 경험이 불가능해진다. 즉,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고유한 특유의 단독인 타자의 경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름을 관통한 같음의 고수는 나르시시즘적인 강제를 낳는다. 자신에게 애착하는 '자기애'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 배제되어 있기에 타자를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된다. 타자와 세계를 자신의 음영으로 지각하고 타인은 소멸된다.³⁷⁾

인간은 저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각자의 담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왜곡된 종교적 신념과 사고방식, 보기방식에 의해 타자 개인이 보유한 개별체로서의 고유한 특이성은 희석되고 획일성에 잠식된다. 더욱이 종교적 율법주의에 의해 강요되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권력관계와 근대화본주의의 복합적인 배경에서 압박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종교적 권력관계와 가부장적 권력관계는 유독 여성에게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지정학적 요건을 갖춘 편견의 대상이 여성일 것이다. 맹목적 신념으로 강요하는 공동체의 굴레는 남녀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간주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남녀를 구별하여 차등한 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떤 요건으로든 차등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지 않는다.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차별과 분열, 대립과 배척은 인간의 이기적 소산이다.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의 시오니즘Zionism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지위 부여

37) 한병철, *op. cit.* pp.36-38.

가 마땅한가 것인가 성찰해 볼 일이다.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서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영역으로까지 근본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분화로 판단하고 배척한다. 다른 타자를 포용하지 않음으로서 가장 이타적인 것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져 배타적인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다. 경제는 물론 문화와 종교에서 서구 모델이 선진이라 믿고 스스로의 차이를 내려놓은 채 각자의 다름을 돌보려 하지 않았다. 율법적 순수성의 고집은 미세한 차이도 불편해하는 구별이며 선함을 가장한 위선이다. 오늘날 (모든)종교는 구별된 선민사상으로 타자 배척을 선동하고 면죄부를 팔 듯이 기복으로 복채를 챙긴다. 불안을 팔아 신앙장사로 일군 거대한 종교기업의 몸집만 불린 교세는 구걸보다도 저열한 사회악이 되고 있다. 사랑과 선을 필요로 하는 약한 타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은 닿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 간다.

< FLOT_5 - FLOT_6 >



【작품25】
FLOT_5,
30.0×30.0×5.0cm,
2ea,
장지, 혼합재료,
2015



【작품26】
FLOT_6,
30.0×30.0×5.0cm,
2ea,
장지, 혼합재료
2015

【작품25】 , 【작품26】 은 다중의 선택이 늘 옳은가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평범함 속에서 간과되는 차별의 일상적인 반복을 나타낸 작품이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에는 선량하다고 착각하는 평범한 차별이 실은 매우 심각한 차별의 말인 경우가 있다. ‘오른손잡이’라는 말에는 매우 차별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 오른손을 사용해야 옳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 거의 대다수가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인간이 사용과 변형을 거듭하며 축적해 온 사고와 감정의 교환 수단으로서 말과 글로 차곡차곡 쌓여 오늘날에까지 이른 것이 언어다. 상호소통의 약속을 전제한 언어에 담긴 시선은 감정과 사고를 규정 짓고 관념적으로 공유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기에 더더욱 중하게 볼 일이다. 다수 위주로 설계된 공공의 그리고 일상의 많은 것들은 소수에게 다수의 편리에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요구가 된다. 왼손잡이에 대한 시선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일부이고 단지 한 예일 뿐이다. 다수라는 커다란 동일성의 범주 속에서 소수의 차이성이 무시되고 배제되는 것은 분명 폭력이다. 동일성을 우위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개별체로서의 고유한 특유성과 차이성은 제거되기 쉽고 소수의 범주는 비정상적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체로서의 고유성은 인간에게 일의적인 동시에, 다의적인 존재(관계적)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중 위주의 설계와 선택이 늘 옳은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보는 것은 평범함 속에서 간과되는 일상적 차별을 보게 하여 준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더 존중한다. 인간에게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다. 다중의 흐름이 흐르는 대로 반드시 진실이 전달된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데, 다수의 차별적 시선에 소수의 가치가 침몰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모두가 가는 길로부터 벗어난 다른 길을 걷는 담대함에서 오는 균열은 극명하고도 낮은 이질감을 맞닥뜨리게 한다. 낮은 것은 변화의 요청이고, 변화란 그렇게 떨림과 두려움을 데리고 갑작스레 다가온다. 좌, 우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덧씌워진 편견이 있다.

< 설치 Installation > - ONDE 38)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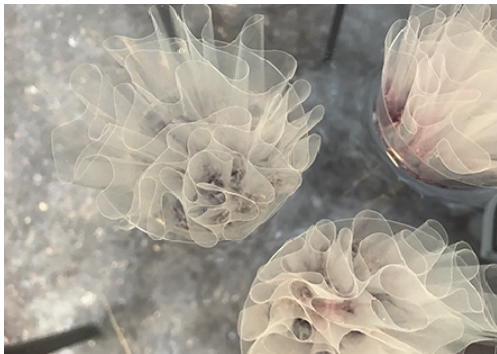
< ONDE_1 - ONDE_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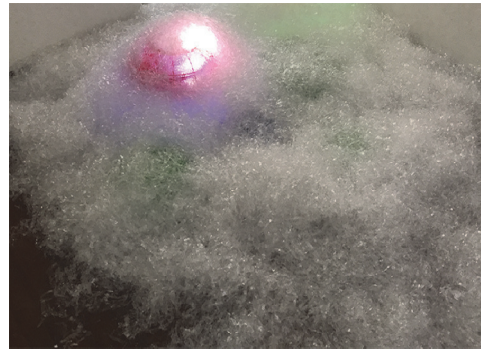
【작품27】 ONDE_1, 설치,
70.0×100×92.0cm,70.0×100×102,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28】 ONDE_2, 설치,
300×400×80.0cm,
비닐, 혼합재료, 2017



【작품27_1】 ONDE_1, 상세



【작품28_1】 ONDE_2, 부분

38) ONDE: 프랑스어, 1.여성 명사:[옛·문어] 파도, 물결,(바다·강·호수의) 물(=flot, vague), 2. 여성 명사; 파형(의 것),굽이침, 일렁임, 3.여성 명사; 파문, 파동. 4.형용사:[문어] 물결 모양[무늬]의, 물결치는, 5.형용사:[문장](윤곽선이) 파형의. (출처: 동아출판 prime 불한사진)

【작품23】, 【작품24】는 〈현존과 이행의 장〉으로 〈존재〉를 끌어들인다. 기획된 시공간의 장치 안에서 참여자들에게 nudge를 통한 경험을 주고자 하였다. 관람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평범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고 주목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의도와 무관하게 왜곡되거나 확산되기도 한다. 소소하게 공유되는 인식과 행동은 연결을 통해 확산되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 평범함의 모습으로 잠재된다.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같음으로 이어진 연결에서 편견이 확산되는 흐름은 무척 쉽게 형성된다. 무심하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들은 일렁이는 물결처럼 무심코 퍼져나간다. 평범하고 소소함에 내재된 무의미한 반복성과 그것이 견인하는 동일성에 따라 무심히 공유되고 전파되는 잔잔한 파동은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된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 또는 개인이 가진 신념이 여론의 형성과 확산에 있어서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탈 진실Post-Truth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된다.³⁹⁾ 본래의 가치는 길을 잃었고 세상을 잠식한 허위에 대중은 쉽게 물려든다는 것이다. 사적인 영역의 무의미하고 소소한 행동의 중요성을 숙고해봐야 할 지점이다.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사적인 영역에서 발견되는 작은 두려움은 집단으로 확산되어 불안을 야기하며 커다란 차별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은 특별할 것이 없는 주변의 평범한 이들로 막연한 불안으로 연결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타자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은 역설적으로 내재된 두려움과 연약함을 반증한다. 배제와 분리는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의 거부로부터 비롯된다. 불쾌한 감정을 잠재우려는 사적인 시도는 공적인 차원에서 불편한 감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을 시도하게 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흑백 인종분리정책⁴⁰⁾이다. 지금은 사라진 법적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39) 마커스 가브리엘 Markus Gabriel, *op. cit.* p4.

40)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p124.

거부의 사회적인 유효함은 법의 테두리 밖에 여전히 있다. 오히려 거부의 부당한 논리는 범 유색인종으로 확장되었다. 배제와 분리는 변모한 형태로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다. 다문화주의가 부재한 다문화라는 단어는 낯선 불편함이 녹아든 한국의 왜곡된 풍경을 잘 보여준다.⁴¹⁾

지금 우리는 탈 진실(post-Truth) 속에 있다는 마커스 가브리엘의 말대로, 불행이 멈추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고 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이 소실된 자기의 신념 속에서 맴도는 것, 그것이 근대성(modernity)의 반복이다. 배제된 타자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이주민에게 투사된다. 각자의 존엄과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배제나 분리와는 매우 상충된다. 다양한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분리계층에 위치하고 있다. 엄연한 현실이지만 누구도 엄중히 여기거나 굳이 숙고하려 애쓰지 않는다. 타자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몹시도 무심한 방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다중의 시선이 대세가 되면 수치심이 흐려진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구석이 있다. ONDE_1과 ONDE_2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작은 행동으로 전파되는 차별의 확산에 있어서,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적인 소소함이 공헌하는 바를 작품에 담아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1864년 필라델피아주 대법원의 ‘West Chester & Philadelphia Railroad Co. v. Miles’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인종 간의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는 합당하다는 논리를 사회적으로 합리화한다. 이후 거침없이 확대되어 강제력까지 갖게 된 분리정책은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고 법적인 강제력은 사라진다.

41) *Ibid.* pp.124-125.

IV. 결 론

연구는 마무리에 이르러 더욱 무거운 책임과 시선으로 세계와 타자를 마주하게 한다. 어떤 화법의 표현으로도 인간에 대한 엄중한 시선을 결코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신봉하는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관념을 쫓으면 자신은 고립된다. 관념을 쫓느라 포기한 무수한 것들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숭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를 뿐 자기를 덮어버리는 숭배는 위험하다. 내적 허기와 상처들이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치유, 그리고 자유를 희망한다. 그것은 평등한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가능한 일이다. 타자에게는 내 모습이 들어 있고 나에게서는 타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다.

우리는 누구나 타자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전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낯선 존재이다. 우리는 뫼르소⁴²⁾처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gesture를 취하며 살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사회 통념상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늘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타자와의 세계에서는 편을 가르지 않는 연대와 상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일깨워 주며 작가로서 더없이 필요한 낯선 시각의 갈망을 주었다.

들뢰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기제인 동시에 차이 또한 반복을 만들어 내는 기제가 된다. 존재는 일의적이다. 일의적 존재의 본질은 개체화하는 차이들에 있고, 존재는 차이 자체를 통해 언명 된다. 그런 존재 안에서 우리의 개체성은 다의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 차이가 있는 반복

42)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저자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1913-1960) ‘부조리’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정직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을 통해서 변화는 생성된다. 차이는 타자의 진정한 가치이며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⁴³⁾. 반복 기법은 자칫 지루할 여지가 있다. 반면, 기교나 각색을 절제한 단순 표현은 상상에 있어서 열린 상태이기에 내용을 담기에는 도리어 심오한 영역이 되었다. <집적된 반복>을 통한 연결의 표현에 있어서 <직관적인 심미>의 추구에 방점을 두지 않았기에 기법의 모색은 오히려 유의미하였다. 특정개념에 의해 지배된 관점과 기대는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기에 익숙한 표현 방식을 탈피한 낯선 표현을 고안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익숙한 재료와 표현을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관점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다른 물성의 세계에는 ‘낯설고 생경함’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달리 보면 도리어 흥미로운 부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 반복 형태의 집적된 표현이 던지는 메시지는 ‘반복의 동일성’과는 역으로, 고정관념에 머문 단일한 관점의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단일한 매체(스크린)의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에게 다른 물성의 통로가 전하는 흥미진진한 세계의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본 연구자는 허위가 공적 담론을 장악하며 위험한 테마들이 쉽게 회자되고 있는 오늘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홀린 듯 같은 것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기적 연결의 반복 표현으로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의 끝에서 연구자는 다른 물성의 세계를 매개로 교감을 선사하고 외부와의 만남에 기여할 책임이 예술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인간성의 확장을 위해서도 예술에는 사회적 내면의 스토리를 토해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통한 울림과 호소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진다. 울림은 공명이다. 일방적이지 않다. 외계는 과잉한데 전달 통로인 매체는 독점되고 있는 형국에서 사회의 내면에는 불편하고 위험한 테마들이 많다. 그것을 예술의 다채로운 물성과 표현으로 만날 때 삶의 이해는 더욱 풍요해질 것이다.

43)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op. cit.* p.102.

본 연구를 통해 반복으로 누적된 오브제의 물성이 이끌어준 새로운 관점의 시선은 다양한 물성과 표현에 대한 모색의 결과로써 낯선 사고와 시선의 필요를 일깨워주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후로도 본 연구를 잇는 다양한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물성에 대한 시도와 표현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며, 이런 새로운 모색이 낯설고 다른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국내서)

- 김미경, 『모노하의 길에서 만난 이우환』, 공간 사, 2006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 비, 2019
-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고통을 함께함에 대한 성찰』, 나무연필, 2018
- 엄기호, 『단속 사회 실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창 비, 2014
- 이우환, 『Lee, U-fan 이우환 무한의 예술』, 에이엠아트, 2020
- 장시기,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 연구』, 당대, 2008
-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 한병철, 『투명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단행본(번역서)

- 알비 삭스 Albert “Albie” Louis Sachs, 『블루 드레스 법과 삶의 기묘한 연금술 The Strange Alchemy of Life Law』, 김신 역, 일월서각, 2012
- 프란츠 파농 Frantz Fanon,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문학동네, 2014
-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이진

- 우. 태정호 역, 한길사, 2002
-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L'homme nomade』, 이효숙 역, 웅진 지식하우스, 2005
- 존 버거 John Berger. 장 모르 Jean Mohr, 『제7의 인간』, 차미레 역, 눈빛, 2014,
- 마커스 가브리엘 Markus Gabriel,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김희상 역, 열린 책들, 2017
- 마커스 가브리엘 Markus Gabriel,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오노 가즈모토 편찬, 김윤경 역, 타인의 사유, 2020
- 마이클 샌델 Michael Joseph Sandel, 『공정하다는 착각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2020,
-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구별 짓기 La Distinction』, 최종철 역, 새물결, 2005
- 수전 섀넌 Susan Sontag, 『타인의 고통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이후, 2004
-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김영사, 2016
- 울리히 벡 Ulrich Beck,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14

전자 문헌

노마디즘

<https://ko.m.wikipedia.org/wiki/%EB%85%B8%EB%A7%88%EB%94%94%EC%A6%98>

남아공 헌법재판소

<https://www.concourt.org.za/index.php/11-former-judges/65-justice-albie-sachs>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642440&memberNo=45998005&vType=VERTICAL>

nudge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4346434&categoryId=31531>

도판 'The banality of the banality of evil' Banksy, 2013

<https://blog.naver.com/puzzlesh3/222271836314>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frkodict/french/#/main>

영상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우환 화백),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https://youtu.be/rxNy7gpMt2o>

ABSTRACT

A study on organic shape expression through
repetition and aggrega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Kwon, Hye-chung

Advised by Prof. Kwon, Ki-bum

Major of Oriental painting, Collage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ganic connection expression in which repetition, which secures the logic of form and the operation function of external expression, appears as an integrated shape encompassing the intrinsic meaning. By involving repetition, as a mediu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objects and phenomena, a unique pattern is created in the network, a representative complex system. In particular, this thes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repetition, which is not limited to the logic of form realization but is also involved in internal aspects in multiple layers.

The inner peculiarity of repetition lies in repetition and continuity of the same and the connection, closeness, and stability to the same. In addition, repetition is the single uniformity of the same activity, which is forced to be identical, with no other tolerated. Instead, it can be seen that it is an immersion in the unstable side of disregard, blocking, exclusion and separation of diversity witnessed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Thu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tervention of differences, which changes the

obsession with repeating the same.

Humans perceive other beings and form relationships through meetings with others in the outer world. However, the lack of diversity, where sameness is enforced, and the difference is excluded, reminds us of the truth that universal values have been restored and the importance of the inevitable responsibility given to others.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others reified by being subordinated to the domination of capital through the struggle for survival reports a dehumanized social phenomen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materialize the criticism of capitalism and modernism and the problematic awareness of human dignity as an expression of a three-dimensional shape through repetition.

Today, capitalist terrorism is not only affecting humans but also animals, plants, and the environment. It shows why we cannot but criticize the imperial modernity of the West reduced to the personal greed of highly industrialized companies. In a contemporary context, we are experienc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civilizations, further raising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ultures. The modern ideology that penetrates and distributes through us has left us with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to fulfil our desires. The inherited legacy is like the genome of living things and is not separated from the present based on the transmitted modernity. Repetition means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by accumulating the same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in the accompaniment with time.

Therefore, this thesis explores the organic shape expressed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three-dimensional shape of the object where the sameness is repeated, and the uniformity is formed by the accumulation of repetition. By attempting to construct a multi-faceted structur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thesis attempts to express the perceived materiality and unique shape.